교종본찰 봉선사 '운악산문' 낙성

3월 28일, 산문 앞서 낙성법회
지역 전법 중심…"사격도 UP"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봉선사는 3월 28일 산문 앞에서 '운악산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가 3월 28일 봉선사 초입에 세워진 산문 앞에서 '천년 고찰의 문을 다시 세워, 새로운 천년을 도약하다' 운악산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번 낙성식에는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과 능엄승가대학원 학장 정원 스님, 수월 대종사, 철안 · 인묵 前 주지, 도일 부주지스님 등 스님들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국회의원 김한정 · 윤호중 · 오영환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 고유문 낭독,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주지스님 인사말, 내빈축사, 축가,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초격 스님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낸 이번 산문 낙성을 통해 봉선사는 교구본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새 천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번 낙성식을 통해 앞으로도 봉선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심신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선사는 이번 산문 낙성식을 통해 사격을 한층 높이고, 지역 전법과 포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봉선사 산문은 지난 2021년 8월에 설계를 시작해, 2022년 9월에 착공, 그해 11월 3일 상량하고 1년 5개월여 만에 낙성식을 갖게 됐다.

이번 불사는 문화재 기능장 제439호 김배능 도편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산문은 화강석 장초석 및 기단에 다포(5포작), 겹처마 맞배 팔작지붕 양식으로 81.00m² (24.50평) 크기에 9.9m 높이로 한국전통목조양식으로 건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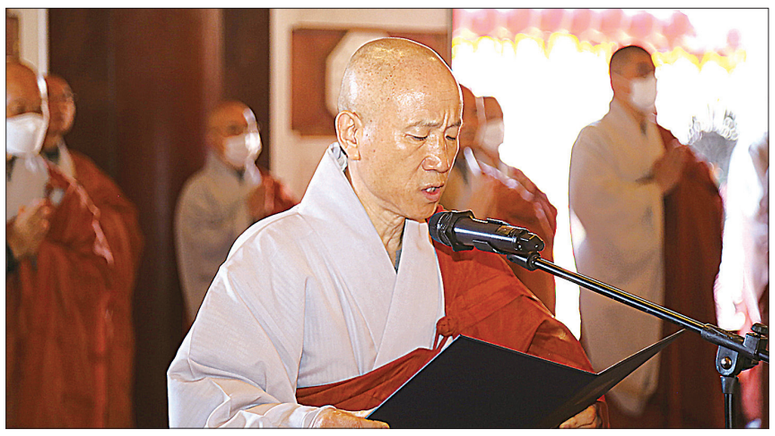
낙성식에 동참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새 천 년과 함께할 새로운 천년고찰 봉선사의 산문 낙성을 74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봉선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산문 한글현판의 글씨가 운허 큰스님의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서체를 운허체로 개발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봉선사와 남양주시를 홍보하면 좋겠다"고 제안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봉선사는 969년(광종 20)에 법인국사 탄문(坦文) 스님이 창건해 운악사(雲岳寺)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1469년(예종 1) 세조의 능인 광릉을 이곳에 모시며 능침으로 삼아 89칸 규모로 중창하고 봉선사라 했다.

이후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번창했던 봉선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소실돼 중창을 거듭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0년에 사찰 대부분이 소실됐다. 전쟁 후 사찰 복구에 나선 봉선사는 운허 스님, 운경 스님, 월운 스님, 일면 스님, 철안 스님, 인묵 스님, 정수 스님, 일관 스님 등 역대 주지 스님들이 중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원력을 계승한 현 주지 초격 스님이 사찰의 정문에 해당하는 산문을 건립하며 사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화합으로 원융살림 이뤄내겠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고불법회
원각스님, '총림발전 노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 축하난 보내와


해인사는 3월 27일 대적광전에서 제29대 주지 혜일 스님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제29대 주지 혜일 스님의 주지 취임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해인사(주지 혜일)는 3월 27일 대적광전에서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전계사 무관 스님을 비롯한 산내 대중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혜일 스님 주지 취임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해인사 제29대 주지로 취임한 혜일 스님은 부처님 전에 헌향, 헌화, 헌다하며 주지 취임을 부처님께 고했다.

혜일 스님은 고불문에서 "천년 도량인 해인사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수행, 교육, 화합, 포교와 전법의 도량으로 넓은 바다 위를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정진하겠다"며 총림대중이 화합하고 수행력을 향상하여 부처님의 미래를 깨닫고 중생교화와 수행자의 증진이 원만 성취 회향하여 우리 사는 사회를 불국토로 환히 밝히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게 되기를 불보살님께 기원했다.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혜일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는 등 종단행정에 밝은 능력 있는 스님으로 해인사의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총림을 발전시키리라 믿는다"며 "사부대중도 화합해서 산중이 안정되고 총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정진을 잘 하도록 하자"고 주지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대통령실 이창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혜일 스님에게 전달했다. 해인사 산내 비구 암자 대표 길상암 감원스님과 산내 비구니 암자 대표 금선암 감원스님,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스님, 승가대 학장스님, 율원 입승스님, 해인사 신도대표, 해인사 종무원 대표, 해인사 교역직을 대표해 총무국장스님 등이 혜일 스님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취임을 축하했다.

혜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해인사가 안정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스님들을 존중하며 그 과정을 통해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융살림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쉽지 않은 숙제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는 성취가 가장 빛나는 것처럼 해인사도 어려운 시절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해인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사의 종무를 이끌어갈 교역직 소임은 총무국장 학암 스님, 도감 향록 스님, 교무국장 진각 스님, 재무국장 홍원 스님, 사회국장 무진 스님, 호법국장 수미 스님, 홍보국장 진일 스님, 원주 종화 스님, 회계국장 보행 스님, 복지국장 석문 스님이 임명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 자방루 보물 지정 기념법회

2022년 12월 28일 보물로 지정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3월 25일 옥천사 자방루 앞마당에서 2022년 12월 28일 보물로 지정된 옥천사 자방루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마가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옥천사가 이름 모를 수 많은 스님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치르고 이제 고성 시민과 함께하는 옥천사가 되기 위해 깨어나고 있다"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방루의 보물안에서 보물을 찾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옥천사 자방루가 보물이 되기까지 노력하신 모든 분들과 고성군 관계자, 문화관광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봄에 꽃이 피듯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옥천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에게 국가문화재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어진 환영사를 통해 "임진왜란 때 보급승병의 거점이었던 옥천사 자방루가 보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며 인연 깊은 옥천사에서 옛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로 군수가 된 것 같아 감회가 깊다"며 "옥천사는 일제강점기 백초월 스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국난극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천년고찰 옥천사 자방루의 보물 지정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옥천사 신도회장에 취임한 정영환 회장은 이상근 고성군수에게 신도회에서 마련한 백미10kg 200포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성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국대 김광식 교수는 옥천사와 관련된 항일운동사 소개시간을 갖고 백초월 스님, 청담 스님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호국도량으로서의 옥천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대중은 옥천사 자방루 안내판 제막식을 갖고 기념식수로 무궁화를 함께 심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 마가 스님은 정영환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계 물절약 캠페인 진행

지역단체와 물 절약 실천 캠페인
3월 26일 무등산 문빈정사 앞서
1973년 이후 2번째 최소 강우량
샤워 시간 절반 줄이기 등 홍보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가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물 절약을 실천'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3월 26일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회원사찰 주지 20여 명과 이범식 신도회장, 이정신 광주시청불자회장을 비롯해 각 구청 불자회, 포교사단광주전남지역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50여 명이 참여해 설기떡(1000명 분)과 물 절약 홍보유인물을 나눠주며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2년 가까이 큰 비가 오지 않았던 광주와 인근 지역은 현재 시민들의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고갈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25일 30mm의 단비가 내렸던 광주와 전남지역이지만 오랜 가뭄으로 인해 식수원 고갈 위기를 극복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물 절약 생활방식이 식수원을 최대 40%까지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5일 현재 광주시의 식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은 18.93%, 주암댐은 본댐과 조절지댐의 평균 저수율이 21.1%를 기록하고 있고, 광주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방법으로 수도밸브 수압저감,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빨랫감 한 번에 세탁하기, 양변기 수조 필밸브 조절 및 물병 넣기,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을 홍보했다.

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2년이 넘은 가뭄으로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위험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되니 우리 스스로부터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고 물 절약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날 무등산을 등반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무등산 정화활동을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후불 목탱화 점안식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이 대법당 후불과 신중 목탱화 점안식 및 닫집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3월 25일 동림선원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된 이날 점안식은 통도사 반야암 지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불교전통방식에 의해 봉행됐다.<사진>

이날 점안된 동림선원 후불 삼신불 목조탱화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을 주불로 관음, 지장, 문수, 보현 4대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신중 목탱화는 예적명왕을 중심으로 팔부신중으로 조성됐다.

2018년 계약 후 나무 건조에만 1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목조탱화 기본 초그림은 조해종 불모, 조각은 수진 목조각원 강상원 불모가 담당했다. 채색 작업은 가람불교미술원 대표 서명식 불모가 6개월에 걸쳐 완성했고 닫집불사 조성은 연리지 불교공예사 이남형 선생이 완성했다.

지안 스님은 "불사란 꽃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꽃밭에 씨를 뿌려 마음속의 심지를 굳건히 심고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과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며 "뜻깊은 점안식 회향불사라는 부처님 복전에 씨를 뿌린 인연공덕으로 모두 성불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림선원에서 5년의 긴 시간동안 사부대중과 함께 대작불사를 회향하는 후불탱화조성과 닫집조성불사를 마무리하며 동참해주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불사를 시작하면서 삼천일기도에 들어가 현재 2차기도 중에 있다. 모든 불사는 좋은 인연과 기도로 이루어짐을 이 불사를 통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김해 동림선원은 2020년 동림불교대학을 개설해 기초교리과정과 전문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또 동림선림원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등 다양한 문화강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도원 스님 초청법회

개교 35주년 기념 초청법회
"새로운 포교 위해 노력해야"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개교 35주년을 맞아 제3대 학장을 역임한 도원 스님(청운사 주지)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26일 전북불교대학 4층 법당에서 '전북불교대학! 지나온 35년, 앞으로의 35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사)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 신용표 부학장, 이지복 부학장, 전북불교대학전법사회 장순금 회장, 김명심 전북불교대학 1기 동문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이창구 학장은 "도원 스님은 전북불교대학이 어려운 시기에 학장으로 부임해 불교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전법을 펼쳤다"며 "특히 부처님세상 법인을 만들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전북불교대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도원 스님을 소개했다.

도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새파란 30대에 전북불교대학을 개교하는 데 산파역할을 하고 2013년도에 제3대 학장으로 부임해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을 설립했었다"고 회고하며 "36년의 시간 동안 전북불교대학은 초 종파의 기치로 지역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성산 미타암 임도 준공불사 회향

착공 1년 5개월 만 정식 개통
노약자 등 사찰접근 용이해져



천성산 미타암(주지 동진)의 숙원사업인 임도가 준공됐다. 미타암은 3월 26일 임도의 중간지점에서 임도불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준공된 임도는 길이 830m, 폭 6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조성됐으며 총 12억 5천여 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2021년 11월 착공한지 1년 5개월 만에 정식 개통하게 됐다.

미타암은 해발 700m 기암절벽 쪽에 세워진 사찰로 그동안 노약자의 사찰방문은 물론 산불방재선 확보, 유사시 보물 99호 아미타불의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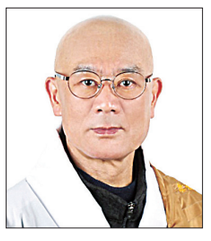
이 도로의 개통으로 미타암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 돼 불자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은 "영남제일의 관음기도처인 미타암이 도로의 부재로 인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산불예방과 문화재 보호 등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임도의 완공으로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대한불교원융종 창종 46주년 기념법회

3월 26일 一空복지장학회도 발족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진호 · 사진)은 3월 26일 원융종 총본산 서울 원융사에서 창종 46주년 기념법회 및 일공(一空)복지장학회 발족식을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영산당 일공(一空) 대조사의 원력으로 이뤄진 원융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람으로 치면 장년의 시기를 맞은 종단은 그동안 많은 역경을 거쳤으나 대조사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과 더불어 살고, 함께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진호 스님은 이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일공복지장학회를 발족하여 소외계층과 만학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융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한신고를 통해 종도 정체성 확립과 종무행정 체계를 다질 예정으로 종도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